중앙·지방 안전상황 점검회의

- 2023. 5. 3(수) 16: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중앙·지방 안전상황 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의 재난은 광역화, 복합화되고 있어서 예측과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 4월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코로나19와 같이 수년간 지속된 감염병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모든 역량을 빠르게 결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4월 2일부터 4일까지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과 4월 11일 강릉 산불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11개 지역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피해조사를 모두 마쳤고, 조만간 복구계획을 확정하여 국민들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삶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복구와 지원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4월 3일에는 산불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하루 동안 대응 3단계가 발령된 대형산불 5건이 전국에서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특히, 동해안은 지리적 특성으로 고온 건조한 날씨와 거센 바람이 더해져 매년 대규모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한 항구적인 동해안 산불 예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영농부산물, 논두렁 태우기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드론과 軍 수송기를 산불 진화에 적극 활용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산불 위험목 정리, 혼합림 확대 등을 통해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하는 산림구조의 변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관계부처 및 지자체는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과 대응 노력에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소관 분야별로 세부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엠폭스 확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엠폭스는 밀접접촉에 의해서만 전파되고 치명률이 0.13%로 비교적 낮아 위험이 크진 않습니

다. 다만, 특성상 밀접접촉자 추적이 어려워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확진 사례가 주로 발생하는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해주시고, 환자분들이 주로 진료를 받는 병·의원에서, 적절한 진단과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 농장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지고 발생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포천에선 동일 소유주 농장에서 바이러스가 연달아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발생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정밀검사 확대 등을 통해 수평전파를 철저히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검출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포획과 수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